
정상외교 활용
한-이탈리아 중소기업 · 협동조합
MOU & 세미나 결과 보고

2026. 7.

KBIZ 중소기업중앙회

□ 기본개요

- 출장기간 : 6. 7(일) ~ 13(토)
- 출 장 지 : 이탈리아(밀라노, 로마)
- 참석대상 : 오기웅 상근부회장

* 실 무 : 김덕룡 글로벌성장팀장, 이현석 과장, 이승현·김강민 대리

□ 주요일정

날 짜	주요 내용
6.7 (일)	○ [출국] 인천 – 밀라노(말펜사) 13:35 – 20:00
6.8 (월)	○ [출국] 인천 – 로마 13:20 – 19:30 ○ 이탈리아 SACMI 면담
6.9 (화)	○ 피렌체 지역 소상공인 판로모델 현장 실사
6.10 (수)	○ 한-이탈리아 협동조합간 비즈니스 미팅 ○ LEGACOOP 업무협약 ○ CONFAPI 업무협약
6.11 (목)	○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 세미나 ○ 한-이탈리아 협동조합간 비즈니스 미팅
6.12 (금)	○ [귀국] 로마 – 인천 21:15 – 16:10 ⁺¹

< 6. 8(월) >

□ SACMI 면담

- 일시/장소 : 6. 8(월) 14:30 / SACMI Imola(이탈리아 이몰라)
- 참석대상
 - 중기중앙회(2) : 오기웅 상근부회장, 이승현 대리
 - 중기연구원(2) : 조주현 원장, 최수정 정책연구본부장
 - SACMI(2)
 - 마티아스 발라르디니 디지털 혁신&자동화 허브 이사
 - 길도 보시 자동화 R&D 매니저
- 주요내용
 - 에밀리아-로마냐 협동조합 생태계 현황 공유
 - SACMI 연혁 및 소개, 지역 공급망 및 중소기업 협력 현황
- 관련사진



※ 참고 : SACMI Imola S.C. 개요

- 본 사 : 이탈리아 이몰라(Imola)
- 설 립 : 1919년
- 기업형태 : 협동조합(Cooperative) 기반 산업그룹
- 주요분야 : 세라믹 타일 생산설비, 포장(Packaging) 기계, 식음료 캡 및 용기 생산설비, 금속·플라스틱 가공기계, 자동화·로봇 시스템
- 특 징 : 주식회사가 아닌 노동자·구성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세라믹 타일제조장비, 병뚜껑, 음료패키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 6. 9(화) >

□ 피렌체 지역 소상공인 판로모델 현장 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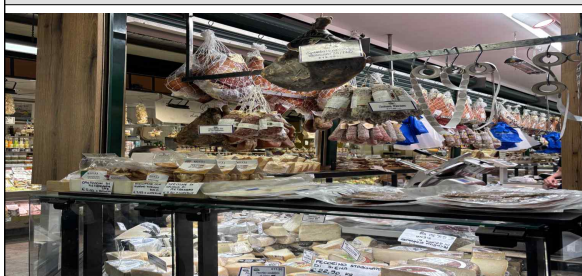
- 목 적 : 피렌체 대표 전통시장인 산로렌초 시장과 복합 식품시장인 메르카토 첸트랄레를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운영 현황과 시장 활성화 모델을 점검
- 일시/장소 : 6. 9(화) 09:00~12:00 / 피렌체 중앙시장(이탈리아 피렌체)
- 참석대상
 - 중기중앙회(2) : 오기웅 상근부회장, 이승현 대리
 - 중기연구원(2) : 조주현 원장, 최수정 정책연구본부장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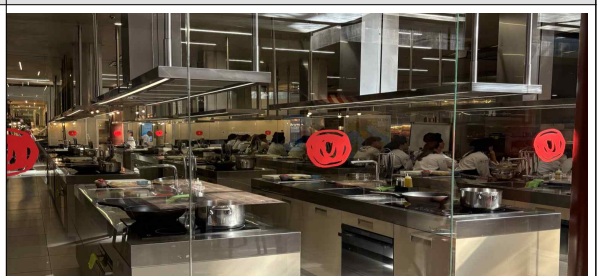
메르카토 첸트랄레 전경



산로렌초 전통시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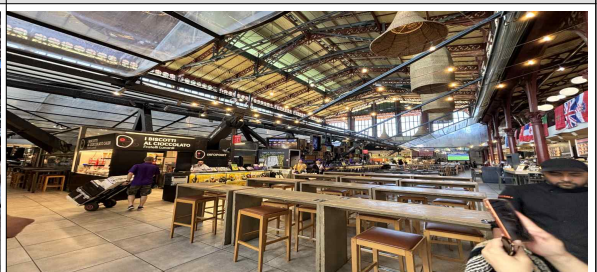
토스카나 지역 특산품 판매 매장



요리체험 교육시설



지역 식품장인 전문 판매점



공동 취식공간 및 푸드홀

< 6. 10(수) >

□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비즈니스 미팅

- 일시/장소 : 6. 10(수) 11:00 / LEGACOOP 본부
- 참석대상 : 대구경북기계(조) 장호영 부장, 지안루카 디 부오 IDEA 회장, 중기중앙회 이현석 과장
- 주요내용
 -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개요, 산업 및 회원사 주요 제품군 소개
 - IDEA의 AI, 로봇틱스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사례, 글로벌 기업간 R&D 협력방안 공유. LEGACOOP 및 이탈리아 협동조합·기업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EU R&D 지원사업 공동 참여 방안 논의 등
 - LEGACOOP과 협력하여 이탈리아 현지 기계산업 박람회 내 ‘대구경북 공동관’ 설치 가능성 검토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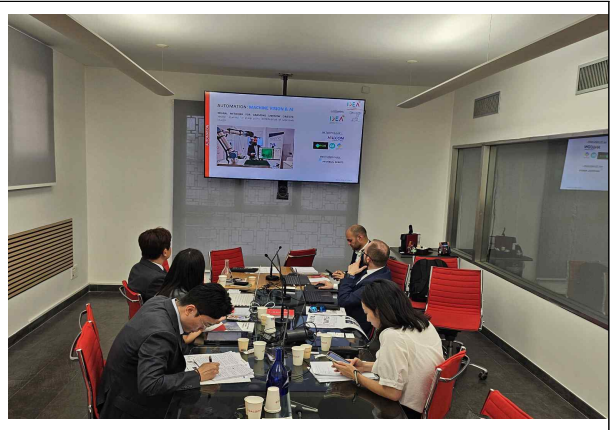
※ 참고 : IDEA 개요

- 설립 : 2007년 설립
 - * 이탈리아 마르케공과대학교(Polytechnic University of Marche)에서 출발한 학술 스핀오프 기업으로 창업
- 소재지 : 이탈리아 안코나(Ancona)
- 주요내용
 - 산업자동화, 전자공학, 홈오토메이션 및 IT 분야의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산업용 자동화 시스템, 비전시스템, IoT, 임베디드 시스템, 로봇틱스, 데이터 분석 및 R&D 솔루션을 제공
 - 2007년 첫 연구지원금을 수주한 이후 유럽 시장 진출 및 산업용 비전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100건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27만 시간 이상의 개발 실적을 보유



□ LEGACOOOP 업무협의

- 일시/장소 : 6. 10(수) 11:30 / LEGACOOOP 본부
- 참석대상
 - 중기중앙회 : 김덕룡 글로벌성장팀장, 이승현 대리
 - LEGACOOOP : 가브리엘레 베르지넬리 국제협력담당관
- 주요내용 :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미나 관련 세부계획 논의 등
- 관련사진



□ CONFAPI 업무협의

- 일시/장소 : 6. 10(수) 14:00 / CONFAPI 본부
- 참석대상
 - 중기중앙회 : 김덕룡 글로벌성장팀장, 이현석 과장, 이승현 대리
 - CONFAPI : 이사벨라 콘디노 국제협력실장, 지오바니 갈란티 마케팅 부장, 엘레오노라 로시 국제관계담당관
- 주요내용 :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미나 관련 세부계획 논의 등
- 관련사진



< 6. 11(목) >

□ VIP 사전환담

- 일 시 : 6. 11(목) 13:40 ~ 14:00
- 장 소 : 그랜드 호텔 플라자 로마(Sala NERONE룸)
- 참 석 자 : 총 4명
 - (韓) 중기부장관,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 (伊) 프란체스코 나폴리 CONFAPI 부회장, 마우로 이엔고 LEGACOOOP Lazio 회장
- 주요내용 :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 및 지원제도 등 소개, 양국간 협력방안
- 관련사진



□ 한-이탈리아 중소기업 · 협동조합 MOU & 세미나

- 일시/장소 : 6. 11(목) 14:00 / 이탈리아 로마(그랜드 호텔 플라자 Ballroom)
- 참 석 자 : 30여 명
 - (韓) 중기부차관,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장 등
 - (伊) 프란체스코 나폴리 CONFAPI 부회장, 마우로 이엔고 LEGACOOP Lazio 회장, 루이지 사바디니 CONFAPI 기계연합회장 등
- 주요내용 : MOU 체결식, 인사말씀, 발제, 자유토론 등

□ 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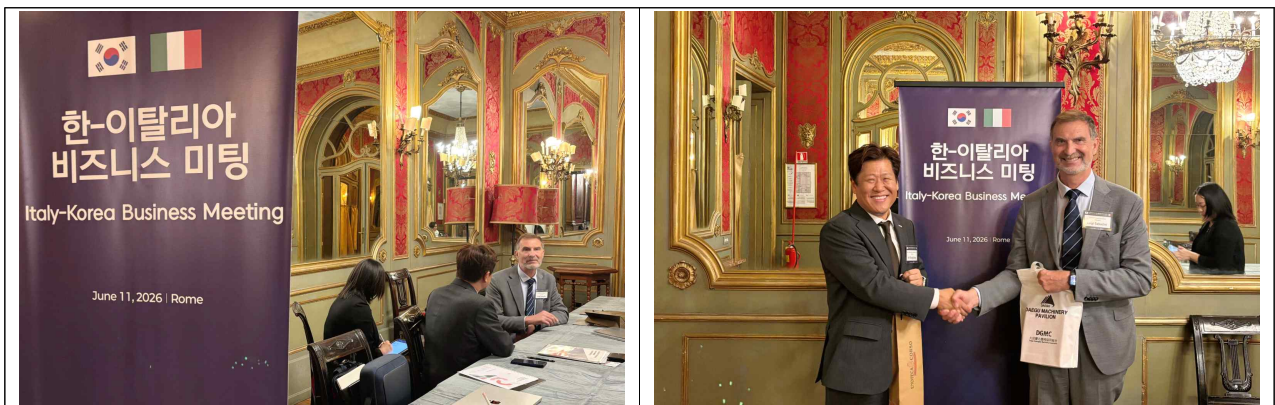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참석자소개	
14:05-14:27	'22	MOU 세션	
14:05-14:17	'12	개 회 사(중소벤처기업부)	
		인사말씀(KBIZ)	
		인사말씀(CONFAPI)	
		인사말씀(LEGACOOP)	
14:17-14:27	'10	MOU① 韓 KBIZ - 伊 CONFAPI	
		MOU② 韓 KBIZ - 伊 LEGACOOP	
		단체 기념촬영	
14:27-15:37	'65	세미나 세션	
14:27-14:42	'15	(발제①) LEGACOOP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 컨소시엄 운영 모델	
14:42-14:57	'15	(발제②) CONFAPI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CONFAPI의 지원체계	
14:57-15:17	'20	(발제③) 중기연구원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으로 만드는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 중소제조업 DX/AX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이 협력방안 -	
15:17-15:32	'15	자유토론	
15:32-15:37	'5	마무리 말씀	

○ 관련사진



□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비즈니스 미팅

- 일시/장소 : 6. 11(목) 16:00 / 그랜드 호텔 프라자(Sala IRIS룸)
- 참석자 : 대구경북기계(조) 장호영 부장, 루이지 사바디니 CONFAPI 기계연합회장
- 주요내용
 - 이탈리아 시장 진출 거점 확보 방안 논의
 - 기술협력 및 공동 컨소시엄 추진 가능성 검토
- 관련사진



※ 참고 : CONFAPI Unionmeccanica 개요

- 설립 : 1947년 설립
 - * 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회(CONFAPI) 산하 금속·기계산업 분야 협회
- 구성 : 이탈리아 전역 약 4만 개 금속·기계 분야 중소기업(SME)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중소 제조업 분야 경제단체
- 주요내용
 - 이탈리아 금속기계산업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 업종별 협회로, 노동협약 체결, 노사관계 지원, 산업정책 건의, 기술혁신 및 국제화 지원 등을 수행하며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지원

CONFAP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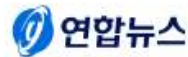
기 관 명	CONFAPI (Confederazione Italiana Piccola E Media Industria Privata)	
설립연도	1947년	
본 부	이탈리아 로마	
기관성격	•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심 경제단체로, 이탈리아 민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 협회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중앙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 수행	
회 원 사	• (회원기업) 약 11.6만개사(중소 제조업 중심) • (지역사무소) 63개	
국제적 위상	• 이탈리아 중소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유럽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유럽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 • 특히 유럽연합(EU)의 산업정책, 공급망, 에너지, 탄소규제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 창구 역할을 수행	
주요역할	• (중소기업 정책대변)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 각 부처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 (노사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 중소기업 노동시장 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국제화 지원)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투자 정보 제공, 해외 비즈니스 매칭, EU 프로젝트 참여, 국제 협력사업 등을 운영 •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산업 4.0,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친환경 전환 등을 지원하는 혁신 프로그램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	

※ (14.10) 중소기업중앙회-CONFAPI MOU 체결

- △디자인 협력 강화, △가업승계전략 공유, △업종별 교류 확대 등

LEGACOOP 개요

기 관 명	LEGACOOP (Lega Nazionale delle Cooperative e Mutue) *전국 협동조합·공제조합 연맹	
설립연도	1886년	
본 부	이탈리아 로마	
기관성격	• 이탈리아 최대·최고(最古)의 협동조합 연합체로, 협동조합의 권익을 대변하고 육성하는 전국 단위 대표 조직 • 농업·식품, 유통, 제조, 건설, 사회서비스, 문화·관광,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 이탈리아 북부의 Emilia-Romagna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협동조합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LEGACOOP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회 원 사	소속 협동조합 10,446개, 조합원 761만	
국제적 위상	• 스페인의 Mondragon Corporation과 함께 세계 협동조합 운동을 대표하는 조직 중 하나 • 2011년에는 이탈리아의 주요 협동조합 연합체인 LEGACOOP, Confcooperative, AGCI가 함께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ACI, Alleanza delle Cooperative Italiane) 을 설립하여 이탈리아 협동조합계를 공동 대표하고 있음	
기능/역할	• (협동조합 육성 및 정책 대변) 중앙정부, 지방정부, EU 기관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 • (협동조합 창업 및 경영지원) 신규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경영자문, 교육훈련, 금융지원 연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위기기업을 근로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Workers Buyout' 프로그램도 운영 • (국제협력 및 EU 대응) EU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며, 국제 협동조합 네트워크와 연계해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주요 회원으로 활동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사회적경제, ESG,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 제공 등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기부,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협력 확대…로마서 MOU 체결

송고 2026-06-12 06:00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업무협약(MOU)' 및 세미나를 열고 양국 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 당시 제기된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따른 후속 사업으로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회(CONFAPI), 협동조합연맹(LEGACOOP)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사업 연계 ▲ 협동조합 정책·정보 교환 ▲ 시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 모델과 지원 체계를 공유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韓·이탈리아 협력 강화...中企·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맞손'

중기부,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 성공모델 및 국제화 전략 공유

등록 2026-06-12 오전 8:27:42
수정 2026-06-12 오전 9:27:42
김세연 기자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탈리아와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현지시간 11일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 열린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당시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른 후속 성과사업으로 전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업무협력 및 세미나'가 마련됐다.

이탈리아는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발달한 국가로 평

가받는다. 특히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협동조합 기반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회(CONFAPI, 콘파피) 및 협동조합연맹(LEGACOO, 레가코)은 각각 MOU를 체결하고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사업 연계 △협동조합 관련 정책·정보 교환 △시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모델과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측은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 컨소시엄 운영 모델',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CONFAPI의 지원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 원장은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으로 만드는 중소제조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한국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i qui: [Home](#) > [Media](#) > [Notizie](#)

NEWS DA CONFAPI

[Indietro](#)

Confapi firma memorandum con Federazione sud coreana Pmi

11-06-2026 - CONFAPI



In occasione della visita istituzionale in Italia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di

ULTIME NEWS

09-06-2026 - CONFAPI

CONFAPI A BRUXELLES
INTERVIENE SU ETS E
CBAM

09-06-2026 - CONFAPI

VINCENZO CERCIELLO
NUOVO PRESIDENTE DI
CONFAPI INDUSTRIA
PIACENZA

04-06-2026 - CONFAPI

Confapi e Camera di
Commercio Cinese in
Italia firmano un
Memorandum per le PMI
industriali

11.06.2026 •

Associazione, Cooperazione allo sviluppo, Internazionalizzazione, Primo Piano, Relazioni Internazionali

Legacoop rafforza le iniziative per il mercato asiatico con la firma dell'accordo con l'associazione delle PMI coreane KBIZ. LE FOTO

Roma, 11/06/2026 - Legacoop ha firmato un accordo di collaborazione con la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KBIZ)*, principale associazione di rappresentanza delle PMI industriali della Corea del Sud.

L'intesa mira a rafforzare la cooperazione istituzionale e lo scambio di buone pratiche tra le due organizzazioni, favorendo al contempo l'apertura di canali diretti per la promozione di opportunità di business tra le PMI coreane e le cooperative italiane.

La firma dell'accordo è stata accompagnata da un workshop, tenutosi a Roma, dedicato al tema dei consorzi cooperativi per lo sviluppo delle PMI. L'iniziativa ha visto la partecipazione del viceministro delle PMI e delle Startup della Repubblica di Corea, Noh Yongseok.

Nel corso dell'incontro, per Legacoop è intervenuto Mauro Iengo, presidente di Legacoop Lazio e componente della Presidenza nazionale. "Il modello coreano vede oggi numerose PMI aggregarsi per settore in consorzi cooperativi che supportano il business dei soci attraverso servizi alle imprese, acquisti comuni e azioni di marketing - ha sottolineato Iengo - Anche in Italia il modello mutualistico e



Condividi su:



노용석 중기부 1차관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성공모델 공유·협력 확대”

입력 2026-06-12 11:3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업무협약(MOU)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당시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라 후속 성과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탈리아는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발달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협동조합 기반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회(CONFAPI, 콘파피) 및 협동조합연맹(LEGACOOP, 레가쿱)은 각각 MOU를 체결하고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사업 연계 △협동조합 관련 정책·정보 교환 △시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모델과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탈리아 측은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 컨소시엄 운영 모델'과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콘파피의 지원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으로 만드는 중소제조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한국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기업 • 중기·IT

중기중앙회, 이탈리아 중기·협동조합과 민간 협력 강화

한·이탈리아 중기·협동조합 업무협약
비즈니스 매칭 지원, 시장 정보 공유 등

박우인 기자 +구독

입력 2026-06-12 08:52



▲ 노용석(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오기웅(오른쪽 첫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프란체스코 나폴리 CONFAPI 부회장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 꺾속 이명 "귀울림" 위험 신호다? 방치했다간 큰일, "이렇게" 하세요!
- 안양, 7억대 아파트 출몰 청약통장X초품아-너블역세권

AD

내일신문

2026-06-12 (금) 014면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협력 확대

중기부 MOU 체결

한국과 이탈리아가 협동조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탈리아는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발달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협동조합 기반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회(CONFAPI), 협동조합연맹(LEGACOOP)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사업연계 △협동조합 관련 정책·정보 교환 △시장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CONFAPI는 1947년 설립된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약 11만6000개사를 대표한다. LEGACOOP은 1886년 설립된 이탈리아 전국 협동조합 연합체다. 1만개 이상의 협동조합과 70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대표 협동조합 조직이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모델과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측은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 컨소시엄 운영 모델'과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CONFAPI의 지원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으로 만드는 중소제조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중소기업중앙회가 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국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협약 및 세미나'를 열고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표 단체 중소기업연합회(CONFAPI), 협동조합 연맹체(LEGACOOP)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당시 강조된 양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및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정부 부처인 기업·메이드인 이탈리아부(MIMIT) 관계자와 프란체스코 나폴리 CONFAPI 부회장, 마우로 이엔고 LEGACOOP 라치오 지역회장 등 양국 관계자 3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비즈니스 매칭 지원, 시장 정보 공유, 협동조합 정책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양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성장 모델과 지원 체계가 소개됐다. 안드레아 코리 LEGACOOP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협동조합 발전 과정과 컨소시엄 운영 모델을 발표했으며, 루이지 사바디니 CONFAPI 기계연합회장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과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양국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탈리아는 협동조합과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해 온 협동조합 강국"이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이탈리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 사례를 참고해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구독

- 배터리 캐즘에도... "無水 수산화리튬 생산량 3배 늘릴 것"
- B2B 강자 퍼시스의 변신...브랜드 철학 담은 소비자 팝업

중기부·중기중앙회, 이탈리아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력 강화

중기부, MIMIT와 양해각서 교환식
제조 기반 소상공인까지 협력 확장
양국 협동조합 간 교류 통해 강화
중기중앙회, 伊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기관과 민간 협력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간 중소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K-브랜드 소비재 우수제품의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한 행사도 이탈리아에서 열렸다.

14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중기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 이탈리아부(Ministry of Enterprises and Made in Italy·MIMIT) 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 분야를 중소기업에서 제조 기반 소상공인까지 확장하고, 협동조합 간 상호 교류를 포함해 양국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오른쪽)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MIMIT 청사에서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 이탈리아부(Ministry of Enterprises and Made in Italy)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기부

이탈리아는 뛰어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제조 역량과 세계적인 명품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을 이루며 이탈리아만의 독특한 브랜드 가치와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다수의 소규모 협동조합이 총출동해 연계된 네트워크형 생태계가 특징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다. 이번 한국과 이탈리아 간 양해각서에는

양국 협동조합 간의 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에서 상호 경제·기술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기부·노용석 제1차관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탈리아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 세미나'에서 (왼쪽 세번째부터) 프란체스코 나폴리 CONFAP 1부회장, 마우로 아옌고 LEGACCOOP Lazio 회장, 노용석 중기부 1차관, 오기용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 세미나'를 열고 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기관인 CONFAP, LEGACCOOP과 함께 민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CONFAP'은 1947년 설립한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로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약 11만 6000개사를 대표하고 있다.

LEGACCOOP은 1886년 설립된 이탈리아 전국 협동조합 연합체로, 1만 개 이상 협동조합과 700만 명 이상 조합원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대표 협동조합 조직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 방한 당시 강조된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 기초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CONFAP, LEGACCOOP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매칭 지원 ▲협동조합 관련 정책·정보 교류 ▲시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기용 상근부회장은 "이탈리아는 협동조합과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해 온 협동조합 강국"이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이탈리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 사례를 참고해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Beauty GLOW WEEK in Rome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 행사에는 뷰티(미용), 패션(의류), 라이프(생활) 분야에서 견고한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브랜드 10여개사가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iseoul.co.kr



중소기업뉴스

2026-06-15 (월) 0011

협동조합 강국 이탈리아와 민간 차원 경험 확대 협약

네트워크 확장 나선 중기중앙회

이재명 대통령 국빈방문에 맞춰
伊 중소기업·조합 대표단체와 MOU
업종별 단체·협동조합 협력 강화
세미나·전시회 공동개최 등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이탈리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추진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도 민간 차원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동조합 발전 모델 공유와 제조업 디지털 전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인 CONFAP, 협동조합 연합체인 LEGACCOOP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과 맞물려 추진됐다. 양국이 AI, 첨단 제조업,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도 민



지난 1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루이지 사바디니 CONFAP 1부회장, 프란체스코 나폴리 CONFAP 1부회장, 마우로 아옌고 LEGACCOOP Lazio 회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오기용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기업연구원장, 라파엘레 알브로시니 MIMIT 장관, 클라우디아 로사티 MIMIT 장관

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오기용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기업연구원장,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및 한국의표기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정부 부처인 기업·메이드인 이탈리아부(MIMIT) 관계자를 비롯해 프란체스코 나폴리 CONFAP 부회장과 마우로 아옌고 LEGACCOOP 라치오(Lazio) 지역회장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CONFAP은 1947년 설립된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로 약 11만 6000개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을 대표한다. LEGACCOOP은 1886년 설립된 전국 협동조합 연합체로 1만 개 이상의 협동조합과 7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조직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과 상호성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협동조합이 경제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국가다.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 온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중기중앙회가 이번 교류를 통해 이탈리아 협동조합 모델을 주목하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비즈니스 매칭 지원 △시장 및 정책 정보 교류 △세미나·전시회 공동 개최 △업종별 단체 및 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기용 상근부회장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멀지만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며 "이탈리아는 협동조합과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해 온 협동조합 강국"이라고 말했다.

이와 'AI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

소기업 간 협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 모델과 지원체계가 공유됐다. 안드레아 코리 LEGACCOOP 연구원도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 컨소시엄 운영 모델'을 소개했으며, 루이지 사바디니 CONFAP 1부회장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지원체제'를 발표했다.

조주현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기자 >관련기사 3면

서울경제TV

(주) 서울경제티브이 > 뉴스경제-산업

중기부,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협력 본격화...로마서 MOU

기사승인 : 2026-06-12 09:28:26

중소기업 간 사업 연계 등 교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명진 기자

myngjin@sedaily.com

[서울경제TV=정명진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업무협약(MOU) 및 세미나'를 열고 양국 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추진된 후속 사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현지시간) CONFAPI, LEGACOOP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사업 연계와 정책·시장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 모델과 지원 체계를 공유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동조합 협력에 정상외교 성과를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12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은 물론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myng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맞손...중기 협력 확대

특정해정 기자 | 승인 2025.06.12 13:23

중기중앙회·콘파파·레가쿰 MOU 체결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탈리아와 협동조합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간 교류 확대에 나섰다.

중기부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이탈리아 총리 방한 당시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중소기업연합회(콘파파)와 협동조합연맹(레가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중기중앙회와 콘파파, 레가쿰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사업 연계 △협동조합 정책 및 정보 교류 △시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947년 설립된 콘파파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약 11만6000개사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주요 경제단체다. 레가쿰은 1886년 설립된 전국 협동조합 연합체로 1만개 이상의 협동조합과 70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협동조합 정책과 운영 사례가 공유됐다. 이탈리아 측은 협동조합 발전 과정과 컨소시엄 운영 모델,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 및 지원체계를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조주현 중기연 원장이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으로 만드는 중소제조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중기부는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발달한 이탈리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협동조합 기반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 교류를 넘어 한국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해정 기자

정해정 기자

저작권 © 신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伊,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력 확대..."글로벌 진출 지원"

이재상 기자

업데이트 2026.06.12 오전 09:51

노용석 중기부 1차관, 이탈리아서 협동조합 협력 확대 논의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에서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프란체스코 나폴리(Francesco Napoli) CONFAPI 부회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오기동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이탈리아와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중기부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 당시 양국 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중소기업연합회(CONFAPI)와 협동조합연맹(LEGACOOP)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발달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협동조합 중심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CONFAPI는 이탈리아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11만 6000여 개사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이며, LEGACOOP은 1만여 개 협동조합이 가입한 이탈리아 대표 협동조합 연합체다.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 MOU e seminario tra PMI e Cooperative Italia-Corea June 11, 2026 - Rome

뉴스1

가
가
가
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날 중기중앙회는 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회(CONFAPI), 협동조합연맹(LEGACOOP)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사업 연계 △협동조합 정책 및 제도 정보 교류 △시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협동조합 정책과 운영 사례, 중소기업 지원 체계 등을 공유했다.

이탈리아 측은 협동조합 발전 과정과 컨소시엄 운영 모델,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 등을 소개했으며 주주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으로 만드는 중소제조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차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한국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국 협동조합 간 교류를 정례화하고 공동 사업 발굴, 수출·판로 협력, 정책 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해서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alexexi@news1.kr

“AI시대 경쟁력은 협력”... 韓·伊 전문가들, 협동조합 역할론 제시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중소기업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에서 양국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 시대 경쟁력은 개별 기업이 아닌 협력 생태계에서 나온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에서는 협동조합과 산업 네트워크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공통된 메시지가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연합체인 LEGACOOP 연구센터의 안드레아 코리 이코노미스트와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인 CONFAPI 산하 기계산업협회(Unionmeccanica) 회장인 루이지 사바디니,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차례로 발제에 나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중소기업 국제화, AI 시대 혁신 전략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협동조합 네트워크로 기업 경쟁력 높여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드레아 코리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 컨소시엄 운영 모델’을 주제로 이탈리아 협동조합 경제의 현황과 성장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4만여개 조직과 130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기반으로 12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가치 창출하고 있다”며 “생산·노동·사회서비스·농업·소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고



韓·伊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미나

이탈리아 협동조합 성장모델 공유
중企의 국제화 위한 지원체계 소개
“AI 시대엔 협력 생태계가 경쟁력”

조합이 AI시대 혁신플랫폼 공감대
양국 협력시 새 성장동력 확보 공감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 이코노미스트는 “협동조합은 단순한 이해관계 조직이 아니라 공동 구매와 연구개발, 금융 지원,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플랫폼”이라며 “지역과 업종을 연결하는 컨소시엄 모델이 혁신 확산과 시장 진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가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며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기업 간 협업 기반을 제공했다면, 루이지 사바디니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을 소개했다.

사바디니 회장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CONFAPI의 지원체계’를 발표하며 “CONFAPI는 약 11만6000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유럽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정책 제언, 기업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회원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전시회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해외시장 정보 제공,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원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 개척과 디지털 전환을 협회 차원의 네트워크와 지원체계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의 AI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지원 체계를 통해 기술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시대 혁신은 협력 생태계가 만든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으로 만드는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모두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중소기업 협동조합 MOU 및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오기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으로 만드는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양국 중소기업 비중 90% 동등)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양국 모두 중소기업이 경제와 고용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원장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I)이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기반 산업 생태계와 한국의 제조 경쟁력을 결합하면 AI 기반 제조혁신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며 “로봇, 공급망, 스마트 제조, 에너지 전환, 산업 플랫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AI 시대 혁신은 개별 기업 중심이

아니라 협력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이 AI 시대의 새로운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이탈리아가 협동조합과 제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협동조합을 단순한 이해관계 단계가 아닌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 플랫폼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참석자들은 협동조합 교류를 넘어 제조업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

이력된 기자

산업 > 중소기업·벤처

중기부, 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 시

홍인석 기자

입력 2026.06.12. 06:00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양해각서(MOU) 체결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사업으로 마련됐다.

三

Chosun Biz



가

국가다. 특히 에밀리아-로마나는 협동조합 중심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회(콘파피), 이탈리아 협동조합연맹(레가쿰)이 각각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양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간 사업 협력 확대를 비롯해 협동조합 정책과 제도 관련 정보 교류, 시장 정보 공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콘파피는 1947년 설립된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단체로 제조업 중심의 약 11만6000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레가쿰은 1886년 설립된 전국 단위 협동조합 연합 조직으로, 1만여 개 협동조합과 70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단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협동조합 성장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탈리아 측은 협동조합 발전 과정과 컨소시엄 운영 사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 및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으로 만드는 중소제조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왼쪽 네 번째부터),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협약·세미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중기중앙회

중기·벤처, 서유럽 판로개척 '물꼬'

중기부·중기중앙회 합동 대표단 벨기에·伊 정책 협력 MOU 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 규제 강화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유럽 시장의 핵심 거점 개척에 나섰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민간 대표단은 서유럽의 관문인 벨기에와 '협동조합 강국' 이탈리아를 잇달아 공략하며 우리 기업들의 유럽 영토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중소기업·자영업자부와 중소기업·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이 중소기업 분야에서 국가(연방 정부)간 공식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벨기에 수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벨기에는 스타트업 생태계 세계 23위, 지원 기능 12위를 기록할 만큼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갖춘 서유럽의 중심지다. 특히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성장한 '딥테크 강소기업'이 발달해 있어,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거점으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 교류, 기술 협력, 비즈니스 매칭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엘레오노르 시모네 벨기에 장관과의 면담에서 올해 12월 한

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6'에 벨기에 측을 공식 초청했으며,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SVC(스타트업 벤처 캠퍼스) 서울을 소개하며 정책 교류를 제안했다.

노용석 1차관은 "벨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친기업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유럽연합의 심장'"이라며 "이번 연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유럽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역동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벨기에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민간 합동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협약 및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당시 논의된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기조를 구체화한 후속 성과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케이(K) 브랜드 글로벌워크'를 추진하며 대대적인 교류 확대에 나섰다.

이탈리아는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촘촘한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로 극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이날 한국 측은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인 콘파피(CONFAPI·11만6000개사 회원) 및 전국 협동조합 연합체인 레가쿱(LEGACOOP·700만명 조합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관련 정책과 시장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세은 기자 news1@

중기·바이오

“협동조합 강국서 배운다”...중기중앙회, 이탈리아 대표기관과 맞손

입력 2026-06-12 10:15:00

가 < >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 세미나’를 열고 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기관과 민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로마서 CONFAPI-LEGACOOP과 각각 업무협약 체결 비즈니스 매칭·협동조합 정책 교류·시장 정보 공유 추진 중기부 ‘K-브랜드 글로벌워크’ 연계해 민간 교류 강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 세미나’를 열고 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기관과 민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당시 논의된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력 확대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는 이번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K-브랜드 글로벌워크’를 추진하고,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교류 확대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정부 (MIMIT)측 관계자와 프란체스코 나폴리 CONFAPI 부회장, 마우로 이엔코 LEGACOOP 라치오 지역회장 등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 30여명이 함께했다.

중기중앙회는 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 CONFAPI, 이탈리아 전국 협동조합 연합체 LEGACOOP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ONFAPI는 1947년 설립된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로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약 11만6000개사를 대표한다. LEGACOOP은 1886년 설립된 이탈리아 전국 협동조합 연합체로, 1만개 이상 협동조합과 700만명 이상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매칭 지원, 협동조합 관련 정책·정보 교류, 시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과 양국 협동조합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모델과 지원체계가 공유됐다. 안드레아 코리 LEGACOOP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 컨소시엄 운영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루이지 사바디니 CONFAPI 기계연합회장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CONFAPI의 지원체계’를 소개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탈리아는 협동조합과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해 온 협동조합 강국”이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이탈리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 사례를 참고해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CONFAPI(Confederazione italiana della piccola e media industria privata)는 이탈리아 민간 중소산업연합회를 가리키며, 이탈리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다.

※LEGACOOP(Lega Nazionale delle Cooperative e Mutue)은 ‘전국 협동조합·상호조합 연맹’으로 이탈리아 전국 협동조합 연합체를 가리킨다.

hong@heraldcorp.com